

종합

광주시 1000억 공사 업계 '눈독'

제1·제2 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내달 발주 처리공법 등 설계 초점... 조달청 통해 토크입찰

광주시가 1000억원에 이르는 하수오염물질 제거시설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어서 국내 건설업계 초기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달 초 총 공사비 982억원(설계·감리비·시공비 포함)에 이르는 '광주 제1·제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을 조달청에 의뢰해 토크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총인(Total Phospho-

rus)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磷)의 총량을 말한다. 인은 질소와 함께 수질계를 부영양화하는 영양염류로 적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총인 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제1·제2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된 총인의 허용치를 현재의 2ppm에서 2012년부터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로써, 오는

2011년 12월 부분 완공한 뒤 2012년 6월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되는 총인 처리시설은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최근 들어 추진되는 광주시의 공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관에서 발주하는 일반 공사물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에서는 '대어(大魚) 중에서도 대어'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현대를 비롯해 대우, SK, 한양, 금호 등 전국의 1군 업체들이 총인 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총인 처리시설의 경우 장

기적으로 좋은 수질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처리 공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단순한 가격보다는 대우의 총인 처리시설처럼 설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이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로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총인 처리시설이 효과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발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싱가포르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
전남도청 정무부처가 22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싱가포르의 대형 수입유통업체인 휴리임펙스 제리 탄(“다섯번째) 대표와 '전남 친환경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송암산단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탈바꿈'

광주시, CGI센터 주변 39만4000㎡ 타당성 조사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쇠락한 광주시 남구 송암산단지가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22일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컴퓨터영상합성기술)센터 주변 39만4000㎡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남구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에는 340억원을 들여 건립

된 CGI센터 중심 기초차료조사 및 조성여건 분석, 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효율적 대안 제시,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투자계획, 연구개발특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연계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연차별 사업 및 지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CGI센터에는 내년 40억원을 포함해 향후 장비 구축

을 위해 꾸준히 투자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송암산단의 산업구조도 자동차 정비나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한 장단기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열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용역 외에도 ▲UN지정 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 ▲인권실현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제2차 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광주 및 산업 특구 지정 등이 심의를 통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에 전남 첫 외국인학교

광양만권자유구역청, 620억 들여 2012년 개교 목표

순천에 전남 첫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2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인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오는 24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는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면 전 메이플립 교육재단 이사장 등 교육재단 관계자 5명, 박준영 전남지사, 최종만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 시행사 및 순천시 관계자 등 6개 기관 17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양해각서 내용은 서면 전 이사장이 사채 620억원을 들여 신대지구에 정원 1500명에 부지 6만6000㎡, 건물면적 4만7500㎡ 규모의 외국인학교(초·중·고)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내년에 착공, 오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년 세계 佛子들 여수로

조계종 '세계불교대회' 개최 밝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되는 여수에서 '세계불교대회'(Global Conference on Buddhism)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여수세계불교대회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유인화·상임대표 영조 스님)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2010세계불교대회 회의'에서 2012년 세계불교대회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불교대회회는 세계불교도 우의회(WFB)가 주최하는 범불교 국제행사로 2년마다 개최되며 지

난 2008년 대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1990년 제17차 대회를 서울 등지에서 개최했으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대회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유치를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세계불교대회총회 부회장)씨 등 유치위원회 일행이 직접 스리랑카를 찾아 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대회 유치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유치에 따라 유치위원회는 범종단 차원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할떡거리고 사는 현실이 더 무섭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공공성에 역점뒤야”

교통학회 세미나 주장

교통영향개선 및 대책평가제도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사)대한교통학회 호남·제주지회 주최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대책의 발전방향'에서 임영길 호남대학교수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영향개선·대책평가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완석 광주대학교수·김효종 한국교통기술학회 부회장은 이날 "교통영향 사업승인을 위한 주요요인에서 배제돼 가고 있는 실정에서 광주시가 다른 도시와 일률적인 조제가 아닌 주차장, 지역산업, 문화도시 특성을 고려해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 최초 키조개서 흑진주 생산

전남수산기술사업소, 11mm 크기 30~40만원 거래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신우철)가 세계 최초로 키조개에서 흑진주를 생산하는 양식기술을 개발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는 2008년부터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개발에 착수해 3년동안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키조개에서 흑진주를 생산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흥지소는 통영지역에서 양식하고 있는 아코야 진주양식 방법을 모델 삼아 외부막 절편 제조, 생리조절, 시술 시기, 방법 등을 흑진주 양식에 맞게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아코야 진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9종의 조개에서 진주

가 생산되고 있으며, 흑진주는 불영미크로네시아, 타히티 등 열대지방 흑진주개 1종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흑진주는 희소 가치가 매우 높아 11mm정도가 30만~40만원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이번 흑진주 양식기술이 보급되면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건보료 인상 평균 3.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3.8% 오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신규 적용함에 따라 전체 783만가구의 지역가입자중 29.5%인 231만가구의 보험료가 상승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16.5%인 129만가구는 보험료가 낮아지며 나머지 54%인 423만가구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이 새롭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전월보다 3.8% 오른 236억원으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2009년 11월엔 평균 6.1%, 2008년 11월엔 평균 5.9% 올랐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3017원을 더 내게 된다. 보험료가 5000원 이하 늘어난 가입자는 91만가구로 보험료 변동이 있는 가입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新裝開業案内

30년을 이어온 - 日式 韓成會館 이 오는 11월 23일 새로운 모습으로 최신키친부 확장수리하여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정성과 친절 봉사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0년 11월 일
한성회관 대표 한 상 열 拜上
에 | 약 | 문 | 의
062-224-2841 ~ 2 · 010-4922-2842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절 기갑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타운) 268-8111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클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 · 전남 · 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가 되었으며 몸매가 모델로 활짝하는 데 거기에서 흔들리며 떨어뜨리는 장미꽃이 어찌나 보드랍고 달콤한지 피부 감각이 느껴지는 듯하고 신체 부위가 실재한 듯이 1m50이 되며 색사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명예 영광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 폭발로 불려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판도 드립니다.

인기폭발 "양코"

(식약청 USA 통관제품)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